

2025 미래엔 공모전

손글씨 & 창작 글감

응모 기간 2025. 5. 2.~10. 18.

제10회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

2025. 5. 2.~10. 18.

www.mirae-n.com

참여 대상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 누구나

공모 내용 자신이 배우고 있는 국어 교과서에서 글 한 편을 골라 쓴 손글씨

참여 방법 우편 접수 또는 미래엔 홈페이지>공모전에서 접수

보내는 곳 (우편번호 06532)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 손글씨 공모전 담당자 앞

제9회 창작 글감 공모전

2025. 5. 2.~10. 18.

01 초등학생 글쓰기 분야

참여 대상 7~12세의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 누구나

주제 선정 자유 주제

공모 부문 ① 동시 ② 기행문 또는 일기 ③ 독후감

02 교과서 창작 글감 분야

참여 대상 선생님 및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제 선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글감으로 적합한 글 (2022 개정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참고)

응모 방법 미래엔 홈페이지>공모전에서 접수(업로드 방식)

손글씨 공모전 주최 | (주)미래엔
후원 |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 교과서박물관 / (주)윤디자인

창작글감 공모전 주최 | (주)미래엔
후원 |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소 / 교과서박물관



미래엔 공모전 바로 가기

수상자 발표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3시
자세한 내용은 미래엔 홈페이지 <https://www.mirae-n.com> ▶공모전을 참고 바랍니다.

시 처방으로 마음 치료하기 - 시 처방하기 수업과 평가, 기록, 책자 제작까지



1. 시작하는 말

2023학년 1학기, <독서> 사회 분야 글 읽기 수업에서는 ‘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와 애도 받을 자격’이라는 주제에 대해 비경쟁 방식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비평문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제게 와서 볼 멘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재난, 애도 이런 어두운 얘기들만 읽으니까 힘들어요.”
“저는 희생자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진심으로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공감하는 게 힘들다고, 스스로 MBTI가 대문자 T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서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타인과 사회에 대해



진연주
부산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

날카로운 비판의 시선을 갖기 이전에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내가 가진 부족함과 아픔에 직면한 후에 단단해진 내면을 딛고 사회를 바라봐야 타인의 부족함에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움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걸 아무런 매개체 없이 맨땅에서 하기란 힘들 겁니다. 작가라는 분들이 생의 진실을 간파하고 뛰어난 솜씨로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문학’의 힘을 제 수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 시 처방하기 수업과 평가, 기록

가. 한 학기의 첫 시간엔 성취기준 읽기

그 과목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읽습니다. 교육과정이 뭔지, 성취기준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해 주고, 가장 흥미로운 성취기준과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성취기준을 고릅니다. 아이들이 선택한 성취기준을 보면서 교사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은 다르다는 걸 매번 깨닫습니다. 이번에도 ‘외국문학은 수능에도 나오지 않을 거고, 아이들도 흥미가 없을 테니 수업 때 제외해도 되겠지?’와 같은 제 마음과는 다르게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를 흥미로운 성취기준으로 고른 아이들도 많았구요,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를 어려울 것 같은 성취기준으로 골라 놓고 이유는 “내가 역사를 어려워해서 이과에 왔는데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라니, 보기만 해도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라고 써 놓기도 합니다. 솔직한 이 마음들이 수업 계획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도 처음 만난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 하기도 좋은 성취기준 읽기 수업을 하고 난 후에는 한 학기 수업 계획을 조직해서 다음 차시에 공지합니다. 이렇게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수업 계획을 짜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좋습니다. 어딘가에서 배운 좋은 수업이나 수행평가를 하고 싶는데 동료 교사나 아니면 평가에 민감한 학부모 등에게 왜 이 수업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학생들과 함께 고른 성취기준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 수업과 평가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당당해집니다.

[12문학04-01]을 어려운 성취기준으로 고른 아이들이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

나봐요. 어른이 되어도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단단하고 견고해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들어갈 필요도 못 느꼈던 타인이라는 존재에 공감하는 건 요즘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제 마음 속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이 성취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바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제각기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정신 없는 학교 생활 속에서 저의 문학 수업만큼은 이 성취기준 하나만을 바라보며 간다는 마음으로 한 학기 수업 계획을 꾸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능까지 남은 날 450일. 이런 숫자들 앞에선 모두가 납작해 집니다.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아 성찰은 배부른 남들 얘기 같고, 사실은 몽클몽클 나를 채우고 있는 고민과 생각들은 모두가 제각각일 텐데 말이죠.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또 전달받은 고민에 처방을 해 주기 위해 시집을 뒤적이며 그 사람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고르고 처방전을 쓰게 했습니다. 이름하여 시 처방전 쓰기!

2023년 봄,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독서교육 분과인 물꼬방 선생님들과 미리 시 처방하기 활동을 해 보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자를 펼쳐볼 때마다 만난 선생님들의 고민과 처방, 그리고 시는 순간순간 차가워지려 하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여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어떤 말이 위로가 될지를 마음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시의 힘은 깊고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집이든지 손에 들고 읽고 싶어지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시들이라도 이 시 중에서 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구절 하나를 발견하겠다는 마음이면 두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나. 시 처방하기 수업의 A부터 Z까지

수업이 시작되기 전 A4 크기의 미색 종이에 양면 인쇄를 해서 처방전 용지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 계신 김애연 선생님이 만드신 양식을 감사히 활용했습니다. 반으로 접은 종이 왼편에는 지금 나의 고민이나 위로받고 싶은 아픔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적게 했고, 이름 대신 별명을 쓰게 했습니다. 무작정 너의 고민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은 고민의 종류나 범위가 어디까지여도 괜찮을지 몰라서 망설입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들을 참고해서 고민의 예시를 읽어 주면 금방 감을 잡습니다.

자기 필체마저 알아볼 수 없게 왼손으로 적겠다며 키득거리는 아이들도 있고, 주변을 훑어 둘러보며 눈치를 살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민을 빨리들 써내길래 ‘진지하지 않은 고민만 가득한 거 아닐까?’ 약간은 불안해하며 슬쩍 펼쳐보니,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오래 담아둔 고민이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스르륵 흘러나왔을까? 싶은, 묵직하면서 솔직한 고민들입니다. 처방전을 걷을 때는 미리 명렬표를 준비해놓고, 자신의 학번 옆에 별명을 적어두도록 합니다. 제출 여부를 교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몇몇 순간에는 이 고민의 주인이 누구인지 교사가 확인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다시 처방전을 돌려줄 때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별명을 적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유용했습니다.

The image shows two forms used in the 'Poetry Prescription' activity. The left form is titled '시 처방전' (Poetry Prescription) and contains a large box for writing, a line for the name (학번:), and a small note at the bottom: '나는 처방도 가는 저 그대나 내 마음을 믿는 저편... 최수정, 『잘못 난우 아재』'. The right form is titled '시 처방' (Poetry Prescription) and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top section is titled '시 처방을 해드립니다.' (We will prescribe poetry for you.) and contains a box for the student's name (이름:). The bottom section is titled '시 처방' (Poetry Prescription) and contains a box for the student's name (이름:), a box for the student's name (이름:), and a box for the student's name (이름:).

다음 수업 시간에는 처방전을 학급끼리 바꾸어 다시 나누어줍니다. 수업의 순서와 반별 인원수를 섬세하게 고려해서 처방전이 교환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에겐 몇 번의 처방전을 받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익명 유지!) 무작위로 받은 다른 친구의 고민 앞에서 아이들의 표정이 어느 반 할 것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사연은 익명이지만 처방은 실명이며, 처방전은 수행평가의 일환이므로 내용의 성실도에 따라 정확하게 채점하겠다고 미리 말한 덕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받은 친구의 고민이 생각보다 무겁고 커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떤 처방이 도움이 될지 진심으로 고민에 빠진 분위기였습니다.

70여 권의 시집을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대여했습니다. 다행히 작년 도서관 도서 구매 때 물꼬방에서 매년 발표하는 추천도서 목록을 참고하여 시 처방에 활용하기 좋은 시집을 구매해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민트색 책 수레에 담아

가서 1인당 3권씩 무작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시집에서 도저히 적당한 시를 찾을 수 없을 땐 친구와 서로 시집을 교환해도 좋고, 아니면 저에게 찾아와 다른 시집으로 바꾸어 가도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시 처방할 때 활용하면 좋은 시도 따로 60편 정도 추려 제공했습니다. 시 처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도 틀어 주었더니 분위기가 아주 진지했습니다. 다른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후기에서는 가끔 장난스럽게 처방하는 학생도 있다 해서 걱정했는데 장난은커녕, 장문의 편지를 쓰느라고 다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긴 편지를 쓰면서 계속 눈시울이 붉어지던 아이가 보였습니다. 어떤 마음일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뭉쳐 있던, 맺혀 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흐르는 눈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어떤 말을 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고백한 친구에게 우리가 해 줘야 할 말은 사실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이 아닙니다. 사실 고민을 말한 그 친구가 해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 친구가 자신의 힘으로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불만이라는 친구에게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너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아이’라고 말해주는 식으로요.”

이 처방전을 읽으며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은 BGM을 추천해주어도 좋다고 했더니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은 각각 다양해도 다들 자신만의 힐링 플레이리스트가 있더라구요. 처방전을 받을 친구에게 정성스럽게 배경음악을 추천하며 자신의 음악 취향을 살짝 드러내는 것 역시 약간의 해방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 쓴 후에 제게 가져다주던 한 친구가 “선생님, 제가 하는 고민이랑 너무 똑같아서 해줄 말이 많았어요.”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수업 후기에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하다는 걸 알았을 때 안심이 되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쓴 걸 봤을 때 이 수업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길고, 어둡고, 고립된 듯한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이렇게 너와 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아이들이 써낸 처방전을 모아서 펼쳐봤을 때는 예상보다 더, 마음이 아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 처방전을 받은 아이의 마음이 혹시나 더 아프거나 다칠까봐 단어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고 곱게 쓴 글들이었어요. 고민해서 고른 시가 주는 울림은 또 어찌나 깊은지요. 내가 나눠준 시집 중에 이런 시가 있었다고? 그 시를 찾아낸 아이들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때로는 선문답 같은 시에 가우뚱하다가 시의 행간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여 고민에 맞게 찰떡같이 처방해놓은 처방전을 읽으면 “아, 그래서 이 시를 골랐구나!” 싶으면서 감동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고백하건대, 처방전을 다 읽고 난 뒤에 쓴 이의 학번 이름을 보고 동공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이런 깊은 내면을 갖고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아이였구나! 사실 교실에 있으면 아이들을 덩어리로 보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냥 몇 반, 몇 학년, 문과 반, 이과 반 이런 식으로요. 담임이 아닌 이상 각 학급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파악하기란 사실 참 어렵거든요. 개별적인 한 아이의 특성은 스치듯 본 눈빛 몇 번, 옆드려 자던 어깨와 정수리, 복도에서 마주칠 때의 표정으로 판단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 처방전을 읽으면서 한 아이가 갑자기 너무나 뚜렷한 색깔과 모양을 하고 제 앞에 서는 걸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이런 단어를 알고, 이런 표현을 쓸 줄 알아요. 무엇보다, 힘들어하는 다른 친구의 어깨를 이렇게나 따스히 감싸줄 수 있는 마음 넓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다. 시 처방하기 평가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행평가이므로 평가도 해야겠죠. 이 활동은 참여율이 100%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수행평가를 설계해도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는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최저 점수를 받더라도 끝내 과제를 안 내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시 처방하기 활동의 경우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누군가 어떤 친

구가 처방전을 받지 못하고 슬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서인지 모두가 정성을 다해 시를 찾고,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점수는 모두에게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이 쓴 시 처방전을 타자로 입력하고, 수정할 부분을 고친 후 업로드하는 과제에서 몇몇이 탈락(?)하는 바람에, 그나마 어느 정도 점수 변별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요구한 내용의 진정성이나 형식 준수 여부에 있어서는, 모두가 제가 제시한 성취 수준 이상으로 잘 해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대부분의 학생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딘가 찝찝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활동에 참여했고, 다소 까다로운 과제였음에도 거의 100%에 가까운 도달률을 보여줬다는 점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저 자신에게도 성취평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수업과 평가가 혁신된 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표 1 — 시 처방하기 활동 채점기준표

단계	평가과제	배점	평가요소	채점기준			
1	시 처방하기	60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 반 친구의 고민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시를 골라 정성껏 처방하여 도움을 주었는가? • 제출 날짜에 맞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날짜당 1점씩 감점할 수 있음.			
				친구의 고민에 맞는 시를 처방하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정성껏 작성함	친구의 고민에 맞는 시를 찾고 처방하였으나, 다정한 말 한마디 작성이 미흡함	시 처방하기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시 처방과 다정한 말 한마디 작성이 미흡함	노력 필요 (미참여)
				60	50	40	30
2	메타인지 활용	40	자기 성찰 역량	• 자신이 쓴 글(시 처방전)을 스스로 성찰한 후 다듬어 제출하였는가? • 수업 일기(배운 점, 느낀 점, 질문할 점)를 성실히 작성하였는가? • 제출 날짜에 맞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날짜당 1점씩 감점할 수 있음. • 항목당 점수 부여 세부 조항에 따라 ±1점씩 가감될 수 있음.			
				매우 성실히 참여함.	성실하나 다소 미흡함.	참여했으나 개선이 필요함.	노력 필요. (미참여)
				40	30	20	10

완성된 처방전은 곱게 접어 미리 국어 도우미들을 통해 만들어 둔 약 봉투에 넣도록 했습니다. 이왕이면 진짜 용한 의사에게 처방받는 느낌이 들도록 말이죠. 처방받을 학생의 별명을 봉투 바깥에 적도록 해서 봉투만 보고도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두툼해진 약 봉투들을 잘 모아서 교탁과 창틀에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처방전을 찾아 조심스레 펼쳐보느라 잠시 정적이 흐르던 교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문학을 통해 연결되는 투명한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일반 책보다는 더 얇고 작으면서 어렵게 느껴졌던 ‘시집’이라는 책의 물성을 손끝으로 체험한 경험, 그리고 원하는 내용의 시를 찾기 위해 스스로 처음 만난 시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애쓴 경험, 그리고 그 시를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활용한 경험. 사실 시 처방하기 활동을 통해 우리는 문학이라는 과목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하기 Tip!

학기말에 생기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울산에 계신 박선미 선생님의 수업 사례(2022년 여름 물꼬방 연수, ‘금쪽같은 시 처방전’)에서 팁을 얻어 감사히 활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시 처방전을 모두 작성하고 난 뒤에 한 번 건읍니다. 제출 마감일 안에 작성을 완료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뒤에 다시 본인의 시 처방전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 양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시 처방전을 모두 타이핑하여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아래는 질문 예시입니다.

1. 당신의 학번은?
2. 당신의 이름은?
3. 당신에게 온, 친구의 고민은? (요약, 생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입력하세요.)
4. 이 고민은 다음 분류 중 어디에 속할까요?
 - 진로
 - 관계(친구, 가족, 지인 등)
 - 학업
 - 자존감
 - 사랑
 - 인생 그 자체
 - 그 외
5. 처방한 시의 제목은? (시집 이름이 아니라 ‘시’의 제목을 쓰세요.)
6. 처방한 시를 쓴 시인의 이름은?
7. 처방한 시 전문을 쓰세요.
8. 처방한 시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담긴 구절은?
9. 친구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처방전) 전문을 쓰세요.
10.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의도는?
11. 9번과 10번에 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학번과 이름은 구글 설문을 받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외에도 시 처방전 문집 제작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친구의 고민과 시 처방, 시 전문을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고민의 분류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해 두어서 문집 제작 시에도 학급별 모음이 아니라 고민의 종류에 따라 목차를 나누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는 구글 설문 결과를 엑셀로 다운받은 후 원하는 값만을 복사해서 엑셀의 ‘&’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 =“시 처방하기 활동에서 ”&C2&“라는 친구의 고민에 대해 ”&D2&“의 시 ”&E2&“를 처방하며 ”&F2&“라는 구절을 통해 ”&G2&“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친구를 위로함.”&H2
- C2: 3. 당신에게 온 친구의 고민은?
 - D2: 6. 처방한 시를 쓴 시인의 이름은?
 - E2: 5. 처방한 시의 제목은?
 - F2: 8. 처방한 시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담긴 구절은?
 - G2: 11. 9번과 10번에 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 H2: 교사의 정성평가

전교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백지부터 다 써야 할 때 참 막막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지정해두고 학생들에게 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일단 틀을 만든 다음, 교사가 관찰한 결과와 정성평가를 더해 윤문하면 훨씬 부담이 덜 하답니다. 교사의 정성평가를 작성하기 직전의 결과물은 아래와 같아요.

시 처방전에 적힌 ‘선택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라는 친구의 고민에 대해 문보영의 시 ‘식탁 위 침묵’을 처방하며 ‘좋은 작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안 좋은 일을 혼자만 알고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통해 ‘옳고 그름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선택 그 자체를 받아들여 내면이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친구를 위로함.

3. 이름도 모르는 너에게 시를 선물할게 – 책자 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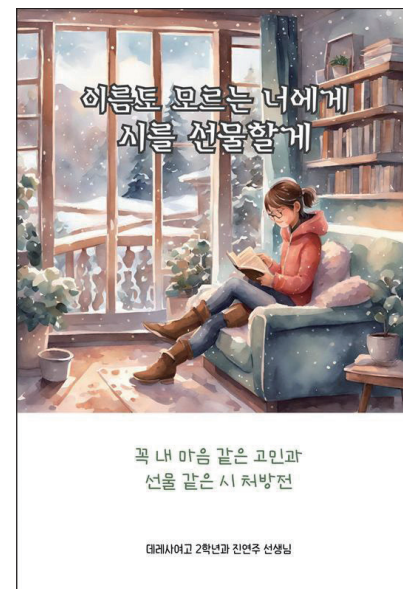
시 처방하기 수업이 시작될 때, 저는 아이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 뒀습니다.

“선생님은 이 수업의 결과물을 책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 너의 말이 책으로 만들어져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걸 엽두에 두고 고민이나 처방글을 써 줬으면 좋겠어. 글이란 공공의 것이어야 하며 독자들에게 읽힐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 처방전에 적힌 너의 글을 읽는 것이 고민 당사자인 친구 한 명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가 될 거야. 필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써 줬으면 좋겠다.”

익명이긴 하지만 고민이 공개되는 것이 꺼려지는 친구의 경우, 구글 설문을 작성할 때 ‘제 고민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질문을 따로 만들어 체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의 고민에 대해 정성을 다해 처방전을 작성한 친구의 마음이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려 두었어요. 그랬더니 한 반에 적으면 0명, 많으면 7명 정도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체크했습니다. 그 학생들은 나중에 엑셀의 필터링 기능을 활용해서 책자 제작 시 포함되지 않도록 했어요.

저는 인문사회교육부에서 독서교육 업무를 맡고 있기에 독서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에도 독서, 토론, 인문, 국어교육과 관련된 교육청 지원 예산이 있을 겁니다. 담당 선생님께 학기 초 문의해보시고 전교생 수, 교사, 여유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수업 후 결과물 제작 용도로 활용할 것임을 예고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자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00만원 정도 되었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 수는 160명이어서 교사 60명 및 여유분을 포함하여 280권 정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책자를 제작할 때는 디자인이나 편집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진행하면 더 멋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워낙 수행평가 등으로 지쳐 있어서 국어 도우미나 미술 전공 학생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한글에 옮겨 붙이는 작업을 제가 직접 했어요. 표지 디자인도 업체에 맡기면 비용이 든다는 말에, 요즘 AI가 그림도 그려주는 시대니까 캔바(<https://www.canva.com>)를 활용하여 제가 원하는 느낌의 표지 그림을 똑딱 만들어 썼답니다. “눈 오는 겨울, 한 소녀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수채화 느낌으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나온 결과물이예요.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상하기도 하답니다. (실내인데 눈이 내리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여유를 갖고 수정하시면 충분히 그럴듯한 결과물이 나와요. 다음에는 저도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나가며 - 시의 손을 잡고 자유롭게 노니는 아이

기말고사가 모두 끝나고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을 위해 전교생이 모두 시민회관에 모였던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오늘 자신이 직접 구매했다며 시집 한 권을 보여줬습니다. 오전에 영화 관람을 마치고 오후 일정까지 시간이 남아 친구들과 근처의 작은 독립서점을 들러 보았다고 해요. 이렇게 자기 손으로 직접 시집을 사게 될 줄 몰랐다는 그 친구의 말에서 저는 앞으로, 졸업 후에도 내내 다정하고 든든하게 곁을 지켜 줄 좋은 벗을 소개한 느낌이었습니다. 시는 어렵고, 정답을 알 수 없어 애매하고, 딱딱하게 분석하고 낱말이 해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의 손을 잡고 자유롭게 노니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시 처방전 책을 만든 후에, 수업에 참여했던 아이들, 그리고 교무실의 동료 선생님들께 한 권씩 나눠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참여한 수업의 결과물이 책으로 나왔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무척 기뻐했고, 학기 말이라 무엇을 해도 심드렁할 시기임에도 집중해서 책을 읽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제가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저에게 참 좋은 수업이라고, 잘 읽었다며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전보 가시느라 있는 책들도 버리며 집을 썼는데 이 책만은 챙겨갔다고 따로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단지 제가 뭔가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격려만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몇 페이지만 읽어도 느껴지는 아이들의 진솔함, 그리고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처럼 내 상처를 감싸고 어루만지는 시가 부린 마법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집중하여 시를 찾고, 또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잘 되길 진심으로 빌었던 그 마음이 차가운 고단함을 녹이는 경험을 더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이 수업을 권합니다. 🌿

필자 소개

13년차 국어 교사로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꼬방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과 학생들의 실질적 문해력 향상을 위한 수업 방식을 개발 연구하고 있다.

에듀테크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천재교과서

AI가 추천하는 나를 위한 맞춤 학습!
빅데이터에 기반한 학습 트렌드 분석!
에듀테크가 펼치는 학습 현장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천재교과서는 기술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비상은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이
다음 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의 즐거움이
교육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것을.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교육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가치들이
곧, 우리 교육의 방향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 -

visang

